

조선 초·중기 진주 동면의 右族 거주 里坊에 대한 연구*

박 용 국**

- I. 머리말
- II. 자연촌의 실태와 우족의 정착
 - 1. 반성현 구역 내의 자연촌
 - 2. 우족의 정착과 자연촌
- III. 우족의 활동과 리방의 성장
 - 1. 우족의 네트워크와 활동
 - 2. 우족 거주 里坊의 성장
- IV. 맺음말

국문초록

『경상도지리지』 진주 임내 반성현의 四方界域에 의하면 그 구역 내에 해당하는 리방은 반성리·가수개리·정수개리·비라동리·부다리·상사리·용봉리·청원리·승어산리 등 모두 9개소였다. 그 리방의 자연촌은 연계재본 『진양지』에 의하면 35개소이지만 그 실태를 고증한 결과 모두 39개소였다.

우족이 정착한 리방의 자연촌과 시기를 검토한 결과 상사리 우곡촌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 F-2019S1A5B5A07107446).

** (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 pyg941021@hanmail.net

는 진양정씨 우곡공과 隅谷 鄭溫(1324-1402), 상사리 백야동에는 고려 말기 진양정씨 은열공과 都染署令 鄭淳이 정착했다. 또한 백야동에는 울산김씨 白巖 金大鳴(1536-1603)의 고조부 奉化縣監 金國老가 정순의 딸과 혼인을 통해 이주했다. 그리고 정수개리 莫耶洞에는 16세기 초에 청주한씨 遯菴 韓承利(1477-1536)가 입향하여 정착했으며, 한승리의 사위 재령이씨 사의공과 大山 李璵(1502-1579)과 그의 仲兄 李琛이 입향하여 거주하기도 했다.

상사리 백야동의 정순의 내외손 가문들과 정수개리 막야동의 청주한씨 가문은 우족으로서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함안과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의 유력 가문들과 혼인을 통해 사회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재지적 기반을 확장하였다. 그들 우족들은 남명학파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삼고, 대과와 사마시 합격자를 다수 배출함으로써 정치·사회적 활동과 영향력도 적지 않았다. 특히 상사리 백야동의 우족들은 향촌지배권을 두고 진주목사 이제신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우족 가문들이 반성현의 縣內 외곽 상사리와 정수개리에 정착하여 번성함으로써 자연촌과 리방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상사리의 속방, 즉 자연촌 백야동은 白也里로 지칭될 만큼 리방의 규모로 성장했다. 정수개리의 중심 마을은 조선 초기까지 龍巖寺의 寺下村인 용암촌이었으나 16세기 초에 이르러 우족 가문이 정착한 막야동이 그 중심 마을로 성장했다. 정수개리와 상사리는 반성현의 지역촌 가운데 縣內 다음으로 이른 시기에 촌락이 형성되고 우족 중심의 리방으로 성장하였다.

◆ 주제어

진주, 동면(東面), 우족(右族), 반성현(班城縣), 리방(里坊), 상사리(上寺里), 정수개리(丁樹介里)

I. 머리말

진주지역은 여말선초의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사족의 구성과 리방의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진주목 동부지역의 임내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1390년(공양왕 2) 진주의 임내 진해현이 주현으로 승격하고, 진성부곡과 월아부곡 등이 직촌화되었다. 반면에 반성현은 여전히 진주의 임내지역으로 남았지만 조선 초에 촌락의 구조와 사족의 구성에 변화가 일어났다. 진주 동면의 우족 거주 丁樹介里와 上寺里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족과 촌락이 존재했던 곳이었다.

전근대 촌락의 구조나 변화 양상은 사회구조의 성격 및 변화와 직결된다. 따라서 전근대 사회의 촌락 연구는 당시 사회 성격을 이해하는 중심 과제의 하나이다.¹⁾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가 『진양지』 各里·古跡條 등의 리방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진양지』 각리·고적조는 국가의 촌락지배체제의 실태의 사실만이 아니라 촌락공동체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되는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대상으로 한 촌락사회의 심층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진양지』 각리조를 연구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적지 않은 오류와 오해를 남긴 주된 요인이다.²⁾

『진양지』 각리조를 연구 대상으로 한 주요한 선행 연구는 17세기 초기 진주지역의 리방 재편과 사족의 관련성을 피상적으로 구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里坊 거주 재지사족의 실태를 알려주는 ‘簪纓世

1) 박종기,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305쪽. 다음의 논고는 조선 중기 촌락의 형성과 관련하여 참고가 된다. 金武鎭, 「朝鮮前期 村落의 形成과 村落社會의 諸勢力」, 『國史館論叢』 30, 1991.

2) 특히 『진양지』 각리조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16세기 진주지역의 방위면 형태의 면리제 연구와 이해에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피상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金俊亨, 「朝鮮後期 面里制의 性格」(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朴鎭愚, 「朝鮮初期 面里制와 村落支配의 강화」, 『韓國史論』 20, 1988; 최윤진, 「16, 17세기에 편찬된 慶尙道の 私撰 邑誌」, 『전북사학』 17, 1994; 오이환, 「『晉陽誌』의 출판」, 『동방학지』 155, 2011, 참고)

出’·‘縉紳’·‘右族’·‘사족’ 등 미시적 사실에 대한 치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속현과 향·소·부곡의 폐합·직촌화와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는 통계 수치의 계량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은 일반화의 오류만이 아니라 永善縣의 전신을 福山鄉이라 하고, 耳谷里와 耳川里를 혼동하는 등 통계 근거 사실에서 적지 않은 오류를 범하였다.³⁾ 그리고 임내의 직촌화 과정에서 그 읍치는 기존 속현의 이름이 리명으로 정착하였지만 그 나머지 구역에는 그 직촌화 이전이거나 비슷한 시기에 몇 개소의 독자적인 리방으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선행 연구에서는 간과하였다. 본고의 연구 대상 리방인 상사리와 정수개리가 성장한 반성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진주 속현인 반성현은 屈村縣에 비정된다는 선행 연구는 오류이다.⁴⁾ 굴촌현은 진주 읍치에서 서쪽으로 50리 떨어진 굴촌폐현인데,⁵⁾ 진주 읍치에서 서쪽으로 55리 떨어진 서면 운곡리의 古稱이 屈村이다.⁶⁾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右族 거주 상사리와 정수개리는 진주 임내 반성현의 구역 내에서 성장한 리방이다.⁷⁾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그것을 간과함으로써 진주 임내 반성현 구역 내부의 자연촌 실태와 리방의 성장을 규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 초·중기 진주 임내 반성현의 구역에 해당하는 리방과 자연촌의 실태를 밝히고, 우족

3) 류승희, 「17세기 진주지방 촌락의 성장과 面-里-屬坊체제의 확립」, 『典農史論』 7, 2001, 66-69쪽 참고 ; 李海濬, 「17世紀初 晉州地方의 里坊再編과 土族」, 『규장각』 6, 1982, 97~103쪽.

4) 윤경진, 「『高麗史』地理志 ‘신설’ 군현의 연원」, 『新羅文化』 40, 2012, 238쪽. 이 외에 『세종실록지리지』 昆南郡의 건치연혁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는 곤남군·하동군을 합쳐 하남현을 신설했던 것이라고 하였으나 곤남군이 아니라 남해현이며, 곤남군·하동군·곤명군의 3개 군현을 합해 군현을 신설한 조치라고 것도 오류이다.(朴宗基, 「朝鮮初期의 部曲」, 『國史館論叢』 92, 2000, 166-167쪽 ; 박종기, 「고려 말 조선 초의 군현 변동」,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502~503쪽)

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진주목 고적조. 이하 『신증』으로 약칭하겠다.

6) 『진양지』 권1, 각리 서면 운곡리조.

7) 『경상도지리지』에 의하면 반성현은 지금의 일반성면 창촌리·개암리·가선리, 대천리를 제외한 이반성면, 사봉면과 지수면 지역이 대략 그 구역에 해당한다.(박용국, 「진주시」, 『한국지명유래집(경상편)』, 국토지리정보원, 2011, 572~581쪽, 참고)

거주 리방의 변화를 우족의 존재양태를 중심으로 규명하겠다. 첫째, 진주 임내 반성현의 구역과 리방 및 자연촌의 실태를 규명한 후 반성현 구역 내에 우족이 정착한 자연촌과 그 실태를 규명하겠다. 둘째, 상사리와 정수개리 거주 우족의 인적 네트워크 및 활동을 규명한 후 우족 거주 리방의 성장을 규명할 것이다.

이 연구 과제의 규명을 위해서 『경상도지리지』·『경상도속찬지리지』 등 관찬 지리지류, 『진양지』·『咸州誌』 등 사찬 읍지류, 『白巖集』·『郊隱集』·『釣隱集』·『八松集』 등 문집류,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朝鮮地誌資料』·『(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朝鮮の聚落(後篇)』 등 마을·지명 관련 자료류, 『朝鮮地形圖』·『朝鮮交通圖』 등의 근대 지형도나 교통도, 『釣隱先生世系圖』·『晉陽鄭氏隅谷派世譜』·『晉陽河氏族譜』·『晉陽姜氏大同譜』·『晉陽鄭氏族譜』 등 족보류, 그리고 『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등의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II. 자연촌의 실태와 우족의 정착

1. 반성현 구역 내의 자연촌

본 연구의 기본 자료인 1632년 편찬의 『진양지』는 몇 종의 이본이 전해지고 있다. 1922년 진주 蓮桂齋 향의에 의한 『진양지』 간행 때 1632년 편찬의 『진양지』 필사본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각 가문에서 傳寫하여 전해온 『진양지』 가운데 서로 내용이 부합하는 ‘伴鷗亭藏本’과 ‘冠坊文氏藏本’을 정론으로 삼았다.⁸⁾ 그리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두 본의 필사본 『진양지』(古 4790-17)와 『진양지』(想白古 915.15

8) 『진양지』 부록, <附晉陽誌同異參考>. 1922년 진주 蓮桂齋 향의에 의한 『진양지』 간행 본은 이하 다른 세 종의 필사본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계재본 『진양지』’로 약칭하겠다.

-J564y)를 소장하고 있다.⁹⁾ 한편 晉陽監營에서 필사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진양지』(K2-4312)는 연계재본 『진양지』와 내용이 거의 같다.¹⁰⁾ 그런데 右族 거주 리방과 관련하여 진주 동면 우족 거주 정수개리·상사리에 대해서는 이본들 간에 차이가 없다. 연계재본 『진양지』에는 서면 雲谷里·桐谷里에도 ‘右族多居’한다고 했다. 하지만 규장각본(A) 『진양지』에는 두 리방 모두 ‘土族多居’라고 했으며, 규장각본(B) 『진양지』의 운곡리에는 ‘사족다거’, 동곡리에는 ‘右族多居’라고 하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두 필사본에도 서로 간에 내용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里名과 屬坊名 및 속방의 수 등에서도 네 본의 『진양지』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 이용 시에 서로 대조하고 실증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진양지』 각리조 동면의 리방 편차의 특징은 역사적 배경과 조건 등 리방의 성장과 변화를 고려하였던 것 같다. 『진양지』 편찬자들은 진주 임내 반성현 구역 내의 각리를 순서대로 편차하면서도 임란 후 리방의 재편을 감안하여 편차하였다. 예를 들면 반성현의 구역 내의 방리를 순서대로 편차하면서도 용봉리에 합해진 청원리와 승어산리를 용봉리 다음의 순서로 편차한 것이다. 이는 반성현의 구역을 확정하고 그 구역 내의 리방의 실태를 규명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사료는 반성현의 역사 시원과 구역에 관한 것이다.

가) 班城縣 新羅時 稱號未詳. 顯宗九年 來屬.¹¹⁾

나) 班城縣 在三國時 稱號未詳 自高麗時 稱班城縣 本朝因之. 驛一 富多. 四方界域 東距咸安郡境於東峴 十四里六十九步 南距鎭海縣惡遷 十八里二百三十步 西距州境仇梯 五里六十步 北距宜寧縣境白也山灘 十七里. 戶二百七十七 內男 六百八十七口 女七百二十三口 合一千四百十口. 土姓四 王·成·邢·周.¹²⁾

다) 屬縣三, 班城 三國時稱號 未詳. 班城姓四 王·成·邢·周. 續姓一 金 固城來.¹³⁾

9) 이하 전자를 ‘규장각본(A) 『진양지』’, 후자를 ‘규장각본(B) 『진양지』’로 약칭하겠다.

10) 이하 ‘한중련본 『진양지』’로 약칭하겠다.

11) 『고려사』 권57, 지리지 진주목조.

12) 『경상도지리지』 진주목관 임내조.

위의 사료 가)에 의하면 반성현은 신라 때 군현의 칭호가 미상이지만 확실한 것은 940년(태조 23) 이전에 폐합된 군현이거나 11세기 이후에 신설된 군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반성현에는 토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반성현은 늦어도 신라 말에 현으로서 존속하고 있었으며, 아마도 940년(태조 23) 무렵부터 반성현으로 불리었던 것 같다. 사료 다)에서 알 수 있듯이 반성현에는 읍사 구성의 주체인 네 토성 王·成·邢·周가 존재했다. 이들 세력은 신라 말기에 촌주세력으로서 정치적 성장을 거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력은 940년 진주 읍명이 菁州에서 康州로 개정될 때 반성현의 읍사 구성의 주체가 되고 토성을 분정 받았을 것이다.¹⁴⁾

반성현은 진주 읍치에서 동쪽으로 50리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으므로 진주에 병합되지 않고 독자적인 군현으로 존속될 수 있었지만 1018년(현종 9)에 이르러 진주에 내속되어 16세기 중엽까지 임내로 존속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성현의 내부 구조는 네 토성이 장악한 현내와 그 주위의 자연촌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그 구역 내의 의 리방과 자연촌의 실태는 어떠했을까.

사료 나)에 의하면 반성현은 동쪽으로 함안군 경계인 於束峴이 14리 69步, 남쪽으로 진해현 惡迁이 18리 230보, 서쪽으로 주의 경계 救濟가 5리 60보, 북쪽으로 의령현 경계인 白也山灘이 17리에 이르는 구역을 가진 진주의 임내였다. 아래 사료는 반성현의 구역이 靈鳳山과 防禦山을 포함하거나 경계로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가) 無畏國統下山所龍巖寺. 乃在於晉陽屬縣班城東隅靈鳳山之中也.¹⁵⁾

나) 靈鳳山 在班城縣東.¹⁶⁾

다) 龍巖寺 在班城縣靈鳳山中 高麗僧無畏所居. 高麗朴全之記 昔道誥曰 若創立

13) 『세종실록지리지』 진주목 속현조.

14) 李樹健, 『韓國中世社會研究』, 일조각, 1984 ;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 출판부, 2003, 참고.

15) 『동문선』 권68, 記 <靈鳳山龍巖寺重創記[朴全之]>.

16) 『신증』 권30, 진주목 산천조.

三巖寺 則三韓爲一 戰伐自息. 於是朔仙巖 · 雲巖與此寺.¹⁷⁾

라) (新增) 防禦山 在班城縣北十五里. 一名岾山 俗音相近.¹⁸⁾

위의 사료 가) · 다)는 朴全之(1250-1325)가 지은 龍巖寺 중창 기문의 일부인데, 1318년 충숙왕의 명령에 의해 無畏國統의 하산소인 용암사에 대대적인 중창과 대장경 봉안이 행해졌던 사실을 전한다. 이 용암사가 진양, 즉 진주의 임내 반성현 경내 영봉산의 산중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사료 라)는 영봉산 북쪽의 방어산이 반성현 구역의 한 경계였음을 말해준다. 물론 반성현 북쪽 15리가 단순히 공간적 위치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전제한 『신증』 진주목 산천조에서는 직촌인 경우 산천의 위치를 읍치로부터 몇리라고 밝히고 있으나 임내인 경우 “加次禮池는 加次禮部曲에 있다.”라고 했다. 따라서 1530년 『신증』 편찬 당시 방어산은 반성현 읍치에서 북쪽으로 15리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반성현은 북쪽으로 남강을 사이에 두고 의령현과 맞닿았으며, 동쪽과 동북쪽으로 靈鳳山과 어숙령 및 防禦山을 경계로 하여 함안군과 잇닿았으며, 동쪽과 동남쪽으로 진해현과 진성부곡을 경계로 했으며, 서쪽으로는 진주 직촌과 5리여 거리에 이르는 공간적 범위를 이루고 있었다. 그 구역은 직촌화 이후 班城里, 淸源里, 上寺里, 丁樹介里, 富多里, 柯樹介里, 勝禦山里, 非羅洞里, 龍奉里에 해당한다.¹⁹⁾ 그러면 그 리방의 자연촌

17) 『신증』 권30, 진주목 불우조.

18) 『신증』 권30, 진주목 산천조.

19) 『진양지』 각리 동면의 리방은 진주목의 직촌과 임내 지역을 구분하여 편차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반성리부터 班東山里에 이르는 12개 리방(반성리 · 가수개리 · 정수개리 · 양전리 · 비라동리 · 부다리 · 상사리 · 용봉리 · 청원리 · 승어산리 · 가좌촌리 · 반동산리)은 본래 반성현의 구역 내에 속했던 지역으로 추정된다. 반동산리 지역이 늦어도 1501년 무렵까지 반성현의 구역 내에 속했다는 사실은 文匡公 虛白亭 洪貴達(1438-1504)이 지은 行副司果 姜元範(2447~1501)의 묘갈명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강원범의 葬地는 진주의 반성현 盤野洞이라고 했다.(『虛白亭集』 卷3, 碑誌 「行副司果姜公墓碣銘」) 반야동은 반동산리의 속방 분매동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하지 않은 양전리 · 가좌촌리 · 반동산리가 반성현 구역 내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상도지리지』 진주목 임내 반성현의 사방계역에 의하면 앞의

실태는 어떠했을까.

班城里는 반성현의 직촌화 과정에서 현내를 중심으로 편제된 리방이었다. 반성리는 縣內·開岩·宣院洞·中防·檀谷·半月·萊防·泥城으로 편제된 동서 10리, 남북 6리에 이르는 리방이었다.²⁰⁾ 그러므로 반성리의 자연촌은 속방의 수와 일치하여 모두 여덟 곳이었다. 반성리에는 ‘無士族之家’였으므로 현내에도 사족이 살지 않았다. 이는 진주 주내의 토성세력이 여초에 상경 종사하거나 고려 중기 이후 사족으로 성장한 것과 달리 반성현의 토성이족이 사족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것을 의미한다. 반성현의 읍치 현내는 주읍 진주의 읍치 州內와 규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진주 주내는 14개리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반성 현내는 직촌화 이후 반성리의 속방으로 편제될 정도로 촌락의 규모가 적었다.

진주 읍치에서 동쪽으로 45리 거리에 있었던 上寺里는 동쪽으로 반성리, 남쪽으로 진성리, 서쪽으로 동산리, 북쪽으로 용봉리를 경계로 하고 있었다. 『진양지』 각리조에 의하면 상사리는 속방 白也·大坪村·屯東洞·隅谷·市城·紙所로 편제된 6개소의 속방이 사방 10리에 걸쳐 있던 ‘縉紳多出 右族居焉’의 지역촌이었다.

상사리는 지명에서 드러나듯이 그 유래가 사찰과 관련된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진양지』 고적조에서 상사리 백야현의 산세가 背走의 형상이므로 탑을 세워서 진압하고 사찰을 건립하여 눌렀다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초기 이래 전국 각지에 裨補寺刹의 건립을 공인한 사실은 향촌사회의 포섭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²¹⁾ 반성현의 배주 지형인 백야현에 비보사찰이 건립된 것은 늦어도 고려 말기 이전일 것이다. 백야촌은 사하촌 성격의 자연촌에서 상사리의 중심 마을로 성장했을 것이다.

그런데 상사리의 속방 수나 司藝 牟恂(1373~1460)이 입향한 자연촌

세 리방 지역이 반성현의 영역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검토를 요한다.

우선 본고에서는 우측 거주 상사리·정수개리 등 9개 리방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20) 『진양지』 권1, 각리 동면 반성리조.

21) 배상현, 「高麗時代 寺院 村落 研究」, 『國史館論叢』 87, 1999, 126쪽.

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1469년 편찬의 『경상도속찬지리지』 진주목 효자조에 의하면 모순의 旌門은 ‘班城 屯東洞’에 세워졌다. 屯東洞은 연계재본 『진양지』의 상사리와 가수개리의 속방으로 모두 언급되고 있지만 가수개리의 속방 둔동동은 頓頭洞의 착오로 보인다.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의하면 진주군 가수개면에는 大同村·駕山村·吉星村(鉢山店)·頓頭村·鷄龍洞(鷄龍店) 등 다섯 곳의 촌락이 언급되고 있다.²²⁾ 가수개면의 다섯 촌락은 연계재본 『진양지』 가수개리의 속방(鉢山店·鷄龍店·屯東洞)과 누락된 가수개리의 본동 가산촌 및 비라동리의 속방 가운데 고성에 편입되지 않은 대동촌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순의 정문이 처음 세워졌던 둔동동은 상사리의 속방이며, 가수개리의 둔동동은 頓頭村[頓頭洞]의 착오라고 생각된다.

한편 규장각본(A) 『진양지』 동면의 상사리 속방으로는 沙令洞과 登建이 추가되어 모두 8곳이다. 모순이 입향한 상사리 登建은 둔동동의 이웃에 형성된 자연촌이지만 조선 후기 이래 두 자연촌의 성장으로 인해 지금은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다. 사령동은 우곡촌의 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자연촌으로서 우곡촌과 이웃하였다. 이는 규장각본(A) 『진양지』의 필사 지점에서 상사리의 속방을 반영함으로써 생겨난 속방 수의 차이라고 여겨진다.

진주 읍치에서 동쪽으로 65리 거리에 있던 정수개리는 동쪽으로 長安山, 남쪽으로 가수개리, 서쪽으로 부다리, 북쪽으로 어속현을 경계로 하고 있었다. 『진양지』 각리조에 의하면 정수개리는 莫耶洞·彌谷·龍岩으로 편제된 3개소의 속방이 동서 8리 남북 10리에 걸쳐 있던 右族世居의 지역촌이었다.

정수개리의 속방 용암은 고려 중기에 용암사의 寺下村²³⁾의 성격을 갖는 자연촌이었던 것 같다. 영봉산 용암사는 상사리의 자연촌 용암의 지명

22) 조선총독부 편,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조선총독부, 1912, 699쪽.

23) 사원과 촌락, 또는 사원의 촌락지배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일반 촌락과 구분하여 그 촌락을 ‘寺院聚落’이나 ‘僧侶部落’, ‘寺下村’, ‘寺院村’, ‘寺院屬村’이라고 지칭하였다. 배상현, 앞의 논문, 96~97쪽, 참고.

이 유래한 사찰로 생각된다. 朴全之(1250~1325)가 지은 <靈鳳山龍巖寺重創記>에 의하면 無畏國統의 하산소인 용암사는 1318년에 충숙왕의 명령에 의해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이루어지고, 대장경이 봉안되었던 사찰이다. 이 용암사의 아래 마을이 용암이었다.

『진양지』 동면 정수개리의 자연촌은 모두 3개소인 것으로 나오지만 후술하듯이 沙寧洞의 존재가 16세기 중엽에 확인된다. 따라서 정수개리의 속방은 모두 4개소이다. 정수개리의 중심 마을은 고려 말기까지 사하촌인 용암이었으며, 16세기 초에 청주한씨가 막야동에 정착함으로써 정수개리의 중심 마을은 용암촌에서 막야동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淸源里는 반성현의 읍치와 주위의 자연촌이 성장하던 때에 형성된 자연촌에서 성장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1469년 무렵의 기록으로 보면 어숙원은 淸元里에 있었다.²⁴⁾ 이 당시 이미 청원리는 반성현의 지역촌으로 성장하였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청원리가 반성현의 지역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원리의 지명 유래와 관련이 있는 淸源寺는 靑坡 李陸(1438~1498)이 1463년 지리산을 유람하고 남긴 글에 나온다. 이록은 그 글에서 “방어산 서쪽에는 淸源寺가 있는데, 바위가 많은 계곡에 임하여 매우 맑은 운치가 있다.”라고 했다.²⁵⁾ 청파가 방어산과 월아산 일대의 경관을 언급하면서 남긴 아마도 청원사는 청원리의 지명 유래와 관련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일 것이다.

『진양지』 각리조에 의하면 청원리는 巨谷·草門·茅谷·芝哲로 편제된 4개소의 자연촌이 동서 8리²⁶⁾와 남북 7리에 걸쳐 있었다.²⁷⁾ 그렇지만 청원리의 4개소의 속방은 그 리방의 자연촌의 모두를 의미하지 않는다. 본동 청원촌이 누락되었다. 청원촌은 청원리 본동으로서 재령이씨 杏亭 李重光이 선대의 정착지 청원리 草門에서 옮겨가 정착한 이후 그 후손이 세거하면서 번성한 마을이다.²⁸⁾ 요컨대 청원리는 『진양지』 각리

24) 『경상도속찬지리지』 진주목 원우조.

25) 『續東文選』 卷21, 錄 <遊智異山錄[李陸]>; 『靑坡集』 卷2, 記 <智異山記>.

26) 규장각본(A)와 규장각본(B) 및 한중련본 『진양지』에는 모두 ‘八里許’라고 했다.

27) 『진양지』 권1, 각리 동면 청원리조.

조의 속방에 본동에 해당하는 청원촌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실제 속방은 4개소가 아니라 5개소였다.

진주 읍치에서 동쪽으로 50리²⁹⁾ 거리에 있었던 勝禦山里는 동쪽으로 방어산이 함안과 경계이며, 남쪽으로 청원리, 서쪽으로 용봉리, 북쪽으로 濂滄나루가 의령현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진양지』 각리조에 의하면 승어산리는 上勝禦山·下勝禦山·無等村·虛谷으로 편제된 4개소의 속방이 동서 5리, 남북 7리에 걸쳐 있던 ‘士族居焉’의 지역촌이었다.

승어산리에는 1474년 무렵에 김해허씨 許鍾가 하승어산에 정착함으로써 사족 거주 리방으로 바뀌었다. 승어산리 김해허씨 입향조 허추는 반동산리 진양강씨 姜叔卿의 딸에게 장가를 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산리로 이거하였다. 이로써 승어산리에 사족이 거주하게 되었다.³⁰⁾

읍치에서 동쪽으로 60리 거리에 있었던 柯樹介리는 동쪽으로 鉢峴, 남쪽으로 非羅谷, 서쪽으로 진성리, 북쪽으로 반성리를 경계로 하고 있었다. 『진양지』 각리조에 의하면 가수개리는 鉢山店·鷄龍洞(鷄龍洞)·屯東洞(頓頭村)으로 편제된 3개소의 속방이 동서 7리, 남북 5리에 걸쳐 있던 ‘無士族之家’의 지역촌이었다.

그런데 『진양지』 동면 가수개리의 속방에는 그 본동에 해당하는 駕山村(佳山洞)이 누락되었다. 가산촌은 반성현의 가수개원에서 성장한 촌락으로서 지역촌에 가까운 규모의 자연촌이었다. 가산촌은 부다리의 속방院中처럼 驛院에서 형성된 촌락이었다. 1912년 1월 1일 현재 한국 道府郡面과 동리의 지명을 반영하고 있는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의하면 진주군 가수개면에는 大同村·駕山村·吉星村·頓頭村·鷄龍洞 등 다섯 곳의 촌락이 나오며, 그 속방 鉢山店은 당시 마산군 良田面 鉢里(外洞·內洞·柿洞)로 편입되어 있었다.

28) 『杏亭集』 年譜 <杏亭年譜>; 『端溪集』 卷12, 墓表 <防山李公墓表>; 『安陵三稿』 卷2, 遺事 <曾王考杏亭府君遺事[李世泰]>; 『拓菴集』 卷32, 行狀 <清榭李公行狀>.

29) 연계재본을 제외한 규장각본(A)와 규장각본(B) 및 한중련본 『진양지』에는 모두 60리라고 나온다.

30) 박용국, 「조선 초·중기 진주 승산리의 역사 변천」, 『남명학연구』 56, 2017, 참고.

진주 읍치에서 동쪽으로 60리 떨어져 있었던 非羅洞里는 동쪽으로 鉢峴, 남쪽으로 고성현의 경계인 牆峙, 서쪽으로 介川里, 북쪽으로 반성리를 경계로 하고 있었다. 『진양지』 각리조에 의하면 비라동리는 大洞으로 편제된 1개소의 속방이 동서 10리, 남북 15리에 걸쳐 있던 ‘民皆公賤’의 지역촌이었다.

그런데 비라동리의 자연촌은 비라동[羅洞과 仙洞] 및 大洞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나동과 선동이 누락되었다. 물론 선동이 조선 중기에 비라동리의 자연촌이었는지는 추후 좀 더 검토를 요한다. 1906년 비라동리 가운데 羅洞과 仙洞은 1906년에 고성군 개천면 청광리에 편입되고, 대동은 진주군 이반성면으로 남았다. 따라서 비라동리의 속방은 선동을 제외하더라도 『진양지』 각리조의 1개소가 아니라 2개소였다.

진주 읍치에서 동쪽으로 55리 떨어져 있었던 龍鳳里는 동쪽으로 승어산리, 남쪽으로 상사리, 서북쪽으로 濂滄江이 의령현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진양지』 각리조에 의하면 용봉리는 東旨·九節·梧桐村으로 편제된 3개소의 속방이 사방 7리에 걸쳐 있던 지역촌이었다.

『진양지』 각리조의 용봉리에는 거민의 신분이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사족이 거주했다는 근거 자료는 없다. 다만 승어산리 김해허씨와 18세기 초 처향 승어산리로 이주한 능성구씨 가문의 葬地로서 중요성을 갖는 리방이었다. 5위도총부부총관을 지낸 가선대부 蓮塘 許東岵(1601~1662)의 묘는 初葬地인 아버지 허갑과 조부 허국주의 묘역에서 8년 뒤에 용봉리 山旨洞 기슭으로 이장했다.³¹⁾ 임진왜란 후 청원리와 승어산리가 이웃 용봉리에 합해진 것은 용봉리가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조건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토지가 낮은 지대에 위치한 용봉리는 자주 수재를 입었으므로 청원리와 승어산리에 비해 경제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용봉리는 조선 후기 승어산리 김해허씨와 능성구씨 가문의 세장지로서 절대적인 영향하에 놓여 있었다.

富多里는 읍치에서 동쪽으로 65리 떨어져 있었으며, 동쪽으로 어숙현,

31) 『葛庵集續集』 卷3, 神道碑銘 <嘉善大夫行平安道兵馬節度使兼安州牧使五衛都摠府副摠管許公神道碑銘 并序>.

남쪽으로 가수개리, 서쪽으로 반성리, 북쪽으로 청원리 모곡촌을 경계로 하고 있었다. 부다리는 可幕洞·院中·驛村으로 편제된 3개소의 속방이 동서 7리, 남북 5리에 걸쳐 있던 지역촌이었다.³²⁾

부다리는 정수개리와 청원리에서 성장한 부다역(역촌)과 어숙원(원중)이 중심이 된 리방이었다. 15세기 말 이후 어숙원이 청원리에서 부다리 소속으로, 부다역도 정수개리에서 부다리로 소속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부다역과 어숙원의 성장만이 아니라 정수개리와 청원리에 정착한 우족과 사족의 성장과 맞물려 있었던 것 같다.

『진양지』 각리조에 의하면 반성현 구역 내의 9개 리방의 속방 35곳이 과연 그 자연촌의 전부인지를 포함해서 그 실태를 고증한 결과 적어도 39개소임을 밝혔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진양지』 각리조 리방의 속방수에 대한 고증 없이 계량적인 방법으로 임란 이전과 이후 진주지역 촌락구조를 해명하려고 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진양지』 각리조 리방의 속방 수는 자연촌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리방의 자연촌을 일일이 실증한 것이 아니었다. 리방에 따라 속방이 리방의 자연촌의 모두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2. 우족의 정착과 자연촌

왜 사족과 구분하여 우족이라고 했을까. 『진양지』 찬술자 浮查 成汝信(1546~1632)·梅竹 鄭承勳(1552~?)·滄洲 河愷(1563~1624)·凌虛朴敏(1566~1630)·鳳岡 趙璫(1569~1652)·丹池 河挾(1583~1625) 등은 당대 진주지역의 내로라하는 사족 가문 출신이다. 그들이 굳이 사족과 구별하여 우족이라고 칭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우족이란 용어는 매우 추상적인 미칭으로 쓰이거나 豪族·甲族·大族·望族·豪強·土豪·豪右·豪黨·鄉豪·大家·豪家·大姓·著姓 등

32) 『진양지』 권1, 각리 동면조.

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며, 고귀하고 번창한 가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 우족은 世族·顯族과 의미가 상통할까. 右族이 언급되어 현전하는 기록으로는 <陝川般若寺元景王師碑>가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이 비문에 의하면 원경왕사(1045~1114)는 속성이 申氏, 이름이 樂眞, 字가 子正으로 그의 先世는 利川郡의 右族이었다. 원경왕사는 숙종 때 승통이 되었으며, 예종 때 왕사가 되었던 인물이다. 원경왕사의 속성 申氏가 이천군의 토성이므로 그의 선대는 아마도 나말여초 이천군의 호족세력과 관련이 있는 집안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경왕사의 선대가 우족이라고 칭한 것은 호족이나 대족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성여신은 의령현 嘉禮에 거주하던 장인 朴士信이 세상을 떠나자 제문을 지어 ‘밀양과 김해의 右族이고, 의령과 삼가의 巨室’이라고 했다.³³⁾ 성여신은 처부가 밀양박씨·처조모가 김해허씨라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박사신을 밀양과 김해의 우족이라 하고, 장인이 외향 의령과 본향 삼가 지역의 명망 가문 출신임을 근거로 삼아 그의 가문을 의령과 삼가의 거실이라고 했다. 성여신의 처부 박사신은 밀양의 토성이고, 처조모 김해허씨는 김해의 토성이다. 이로 볼 때 성여신은 토성으로서 명망 가문을 일러 우족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는 단종이 敎推忠靖難功臣 通政大夫 禮曹參議 成三問에게 “너는 삼한의 우족이요, 一代의 名儒이다.”라고 했던 사례와 비슷하다.³⁴⁾ 한편 우족은 관작과 지위만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³⁵⁾ 그렇다면 정수개리와 상사리의 우족들은 벼슬의 높고 낮음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지역 사족의 평판에 의해 규정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진주 동면 상사리·정수개리 거주

33) 『浮查集』 권4, 祭告祝文 <祭婦翁朴公文>.

34) 『단종실록』 권13, 단종 3년 1월 24일(경오).

35) 성호 이익은 “선비를 논할 때에도 관작과 지위로 하지 않고, 만일 한 고을의 物望이 아니면 비록 자신이 靑紫를 취하였더라도 수에 치지 않는다. 先賢을 대단히 좋아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퇴계 이황·남명 조식·서애 유성룡·한강 정구·우복 정경세·여헌 장현광 등 여러 선생의 문하에 출입한 자는 그 후세 자손을 모두 우족으로 칭하고, 父祖의 관작이 없는 것은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다. 『星湖僊說』 卷13, 人事門 <嶺南五倫>.

우족과 그들이 정착한 자연촌을 살펴보자.

상사리 우곡촌에 입항하여 정착한 우족은 隅谷 鄭溫(1324~1402)의 진양정씨 우곡공파 가문이다. 우곡공파의 파조 우곡 정온은 고려 말기에 우곡촌에 정착하였다. 정온이 그 이전에 살았던 곳은 알려져 있지 않다. 『진양지』 인물조에 의하면 정온은 政丞 鄭碩의 아들이며, 관계가 자헌대부에 이르렀으나 고려 말에 靑盲이라 稱疾하고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태조가 여러 번 불렀으나 더 이상 벼슬살이에 나아가지 않았던 인물이다. 이외 그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입항 이후 그의 행적은 알려진 게 없다.³⁶⁾

상사리 백야동에 입항하여 정착한 우족은 都染署令 鄭淳(생몰년 미상)의 진양정씨 은열공파 가문이다. 문무백관의 관제에 의하면 도염서령은 染造를 관장하던 정8품직이었다.³⁷⁾ 그의 세계를 보면 가전 자료에 따라 약간의 이견이 있다.

태안박씨 朴安邦(?~1577)은 진양정씨 진사 鄭角의 딸 사이에 凌虛 朴敏(1566~1630)을 두었다. <태안박씨무침록>의 박안방의 세계에 덧붙여 있는 <附夫人世系>에 의하면 진양정씨 鄭子友 계열의 세계가 밝혀져 있다. 이에 의하면 정자우의 5대손이 은열공파의 파조 鄭臣烈이며, 정신열의 5대손이 典客令으로 致仕한 鄭天益이다. 정천익의 사위가 세조대에 富民侯로 추봉된 文益漸(1329~1398)이다.³⁸⁾ 이들 가전 자료에 의하면 진양정씨 은열공파 가문은 정신열 이래 진주 서면 소남촌에 세거하였다. 정천익의 아들 鄭吉逢은 經德齋主, 손자 鄭陽은 軍器寺尹, 증손자 정순은 前朝에 都染署令을 지냈다고 한다. 정천익의 외손 文中庸은 아버지 문익점의 공로와 그 자신의 효행으로 인해 1401년 윤3월에 정6품직 司憲府監察을 제수받았다.³⁹⁾ 그렇다면 정순도 고려 말에 정8품직 도염서

36) 『鼎山志』, 九先生行錄 <資憲大夫行司憲府大司憲隅谷鄭先生墓碣銘[李萬育]>; 『訥庵集』 卷5, 墓誌銘 <隅谷鄭先生墓誌銘>.

37)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정미).

38)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6월 13일(정사);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 9월 5일(신해).

39)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윤3월 1일(경인).

령을 제수받았을 가능성 높다고 본다. 정순은 세거하던 진주 서면 소남촌을 떠나 동면 상사리 백야동으로 이주하였다.

정수개리에는 16세기 초 이후 우족이 세거하였는데, 청주한씨 遯菴 韓承利(1477~1536)에서 비롯했다. 그가 입향한 곳은 정수개리의 속방 가운데 한 곳인 莫耶洞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수개리의 우족에는 한승리의 사위 大山 李璵(1502~1579)의 재령이씨 가문도 포함된다. 연계재본 『진양지』 각리 서면 운곡리조의 ‘右族多居’의 실체는 대산 이전의 叔兄인 主簿 李琮의 자손이다. 재령이씨 雲谷里 입향조 이종의 아들 진사 李喜萬(1522~?)은 당시 진주의 豪強으로 지칭되었던 인물이다.⁴⁰⁾ 따라서 정수개리의 우족은 청주한씨 한승리의 내외손 가문이다.

釣隱 韓夢參(1589~1662)이 종형 韓夢逸을 대신하여 지은 한승리의 묘갈명에 의하면 한승리는 연산군의 폭정을 피해서 먼 남쪽 진주 정수개리로 流寓하고 遯菴이라고 自號하였으며, 그 가문은 경상우도의 유력 사족으로 편입되었다.

한승리의 고조부는 영의정을 지낸 西原府院君 文簡公 信齋 韓尙敬(1360~1423), 증조부는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관찰사를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韓惠(1403~1431), 조부가 좌찬성을 지낸 西平君 文靖公 韓繼禧(1423~1482)이다. 청주한씨 정수개리 입향조 한승리는 한성판관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추증된 아버지 韓士武와 原州邊氏 현감 邊保의 딸 사이에 태어난 여섯 아들 가운데 셋째이다. 한승리는 首陽吳氏 縣令 吳光俊의 딸(1477~1569)을 아내로 맞아들여 2남 1녀를 두었다. 장자 韓汝俊은 鐵城李氏에게 장가들었으나 일찍 죽어 동생 韓汝哲의 第二子 韓膺이 그의 후사가 되었다. 차자 司成公 韓汝哲(1521~1566)은 1543년(중종 38)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48년(명종 3) 별시 대과에 합격하였다.⁴¹⁾ 그의 사위는 함안의 재령이씨 이계현의 아들 대산 이전이다.⁴²⁾

40) 『진양지』 권4, 총담조 ; 『선조실록』 권3, 선조 2년 5월 21일(갑자).

41) 『진양지』 권4, 문과조.

42) 『釣隱集』 卷3, 碑誌 <曾祖考遯菴處士墓碣銘[代從兄夢逸作]> ; 『釣隱集』 卷3, 碑誌 <先考府君墓表>.

Ⅲ. 우족의 활동과 리방의 성장

1. 우족의 네트워크와 활동

우곡 정온의 증손 처사 鄭二寶는 진양정씨 은열공과 백야동 입향조 정순의 사위 奉化縣監 金國老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사위가 생원 鄭角이다. 정각은 정이보의 딸 사이에 두 아들과 두 사위를 두었는데, 鄭大濩·鄭大咸·朴安邦·李契이다. 박안방의 아들이 凌虛 朴敏(1566~1630)이다. 특히 정대호와 정대함은 1570년 진사시에 동방 급제했다.⁴³⁾ 진사 정대호는 1578년 목사 이제신에 의해 豪強으로 鄉曲을 무단한다는 誣告를 당하였다.⁴⁴⁾ 정각의 강학 활동은 백야동의 자제들을 크게 진작시켰다.

생원 白溪 鄭角은 백야촌에서 5리 쯤 떨어진 청원리 茅谷에 講學을 위한 齋室을 마련하였다. 정각의 종형제 龍潭 鄭安(1527~?)과 두 아들 月汀 鄭大濩(1538~?)·茅庵 鄭大咸(1549~?) 및 용담의 조카 南溪 鄭承尹(1541~1610)이 함께 강학하고 교수하였다. 이들 모두 1570년(선조 3) 식년시 진사시에 동방 급제하였다. 그곳의 재실이 없어진 후에도 그들로 인해 同榜洞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⁴⁵⁾ 정안은 1570년(선조 3) 식년시 생원시만이 아니라 진사시에 장원하였다. 정대호는 진사시 3등 26위에, 정승운은 진사시 3등 28위에, 모암 정대함은 진사시 3등 44위에 급제하였다.⁴⁶⁾

三溪 鄭密(1520~1582)은 백야촌의 진양정씨 입향조 정순의 현손이다. 그는 1520년 백야촌에서 參奉 鄭碩贊과 어머니 경주정씨 생원 鄭希鈞(1459~?)의 딸 사이에 태어났다. 상사리에 거주하던 정희균은 司憲府

43) 『訥菴集』 卷6, 墓碣銘 <參奉鄭公墓碣銘>.

44) 『선조실록』 권12, 선조 11년 7월 18일(정묘).

45) 『晉陽續誌』 卷5, 增補 古蹟條.

46) 『隆慶四年庚午二月十八日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9-2]) ; 『訥菴集』 卷6, 墓碣銘 <參奉鄭公墓碣銘> ; 『后山集』 卷16, 墓碣 <南溪鄭公墓碣銘 竝序>.

持平 鄭其(1380~1425)의 손자이며, 대사헌 진산군 苦軒 河允源(1322~1376)의 외현손이다. 정기는 영의정 敬齋 河演(1376~1453)의 姑從弟이다. 정희균의 증손이 의병장 鄭大方(1565~1613)이다. 정밀은 1543년(중종 38) 식년시 진사시 3등 32위에 급제한 후 1558년(명종 13) 식년시 병과 6위로 급제하였다.⁴⁷⁾ 정밀은 벼슬살이에 나아가 내직으로 司憲府持平과 宗簿寺監正, 외직으로 밀양부사와 안악부사 등을 지냈다. 임란 의병장 정승훈은 아버지 정밀과 어머니 晉州柳氏 柳千挺의 딸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정승훈의 사위가 하협이다.⁴⁸⁾

정치·사회적으로 크게 활동했던 정순의 외손 가문이 진양강씨 誠齋 姜應台(1495~1552) 집안이다. 진주 동면 대여촌리에 거주하던 姜安重이 1462년(세조 8) 알성시에 장원급제하여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충청도 감영의 종5품 都事로 출세하였으나, 관찰사 金震知의 뇌물 건에 연이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⁴⁹⁾ 강안중의 아들 姜瑄은 1510년(중종 5) 식년시 병과에 급제하여 벼슬살이에 나아가 사천현감을 지냈다. 효행으로 진주지역에서 이름이 났으며, 아들 강응태도 효행으로 정려되고 정려비가 백야동에 세워졌다.⁵⁰⁾

강응태는 1532년 과거에 합격하여 사간원헌납, 사헌부지평, 홍문관수찬 등의 청요직을 거쳐 順天府使를 지내고, 密陽府使로 있을 때 병으로 죽었다.⁵¹⁾ 그는 司憲府持平으로서 훈구파의 숙청을 간하였다가 1544년(중종 39) 4월에 遞職되었다.⁵²⁾ 명종이 즉위하고 정국이 바뀌어 1547년(명종 2) 다시 헌납에 제수되어 훈구파의 척결을 주장하였다.⁵³⁾ 그렇

47) 『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48) 『淸溪誌』 『三溪實紀』, <墓碣銘 并敍[李鍾祥]>; 『郊隱集』 卷下, 墓誌 <贈奉列大夫漢城少尹行司憲府持平戶曹正郎鄭公其墓誌銘>; 『勿川集』 卷15, 墓表誌碣 <成均生員東溪鄭公宜人安東權氏合墓碣 銘竝序>; 『진양지』 권3, 사마조.

49) 『세조실록』, 권29, 8년 8월 28일(경인); 『세조실록』, 권36, 11년 8월 25일(경자).

50) 『진양지』 권3, 효행조.

51) 『游軒集』 卷4, 碣銘 <密陽府使姜公墓碣銘(壬子)>.

52) 『中宗實錄』 卷102, 中宗 39年 4月 7日(乙亥).

53) 『明宗實錄』 卷5, 明宗 2年 3月 6日(丁巳); 『명종실록』 권5, 명종 2년 3월 13일(갑자).

다면 강응태는 사림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사후 臨川書院에 배향되었다. 강응태의 차자 姜洌은 이전의 仲兄 李琛의 셋째 사위이다. 강응태의 사위가 울산김씨 白巖 金大鳴(1536~1603)이다.⁵⁴⁾

김대명의 고조는 奉化縣監 金國老, 증조는 司儀 金輕重, 조부는 靖陵參奉 金碩楨이다. 그는 1536년 백야리(백야동)에서 아버지 自如道察訪 金樞와 어머니 안동권씨 兵曹佐郎 權俊의 딸 사이에 태어났다. 김국로는 백야동의 정순 딸과 혼인함으로써 처향으로 이주했다. 김대명은 三溪 鄭密에게서 배우고 35세 때 1570년(선조 3) 식년시 문과 갑과 1인에 급제하고,⁵⁵⁾ 이후 벼슬살이 나아갔으나 1587년 鳳山郡守를 끝으로 벼슬살이를 그만두었다. 그는 임진왜란 초기 都召募官으로서 진주 인근의 적을 방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⁵⁶⁾

정수개리 청주한씨는 우족이라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누렸으나 자손이 귀했다. 한승리의 증손자는 모두해서 3명밖에 없었다. 한몽삼은 종형 한몽일을 대신해서 지은 증조 한승리의 묘갈명에서 정수개리 입향 이후 자손이 귀한데다가 난리를 겪고 난 후 선조의 후사는 불초와 종형제를 포함해서 모두 3인이자면서도 “모두 大夫의 반열에 올랐으니 다행스럽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수개리 우족의 활동에서 입향조 한승리의 아들 한여철의 관직 생활을 빼놓을 수 없다.

한여철은 자가 仲明이며, 둔암 한승리의 차자이다. 그는 1543년(중종 38) 식년시 생원과에 전체 8위로 급제하고, 1548년(명종 3) 별시 을과 探花郎, 즉 2위에 급제하여 벼슬살이에 나아갔다. 翰林과 獻納을 지내고 昆陽郡守 재임 중 관아에서 불과 45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한여철은 재령이씨 僉知 李珪의 딸 사이에 두 아들 韓誠(1548~1603)와 한응을

54) 『游軒集』 卷4, 碣銘 <密陽府使姜公墓碣銘(壬子)>.

55) 『선조수정실록』 권4, 선조 3년 3월 1일(무진).

56) 『白巖逸稿』 卷2, 附錄 <家狀[金聖運]>; 『游軒集』 卷4, 碣銘 <密陽府使姜公墓碣銘(壬子)>; 박용국, 「壬辰倭亂期 晉州地域 南冥學派의 義兵活動」, 『南冥學』 16, 2011, 참고. 김대명은 성여신 등과 함께 진주지역의 유력 사족 가문의 일원이었다.(박용국, 「조선 중기 진주지역 사족과 청곡사의 장소성」, 『남명학연구』 59, 2018; 박용국, 「부사 성여신의 가계와 그의 삶」, 『부사 성여신』, 예문서원, 2015, 참고)

두었다. 한여철은 둘째 아들 한응으로 하여금 일찍 죽은 형 한여준의 후사를 잇도록 했다.⁵⁷⁾

한계는 1590년(선조 23)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천거를 받아 司饗院參奉, 다시 宗廟署奉事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일찍이 寒岡鄭述(1543~1620)의 문하에 나아갔는데, 한계는 정구를 스승 보는 듯하고, 정구는 한계를 친구 대하듯 하였다고 전한다.⁵⁸⁾ 임진왜란 때 한계는 도소모관 김대명, 정승훈과 함께 소모한 군사 600여명을 동원하여 고성 의병장 崔綱과 협력하여 적을 혹은 유인하고, 혹은 매복했다가 야습하는 등 의병활동을 펼쳤던 인물이다.⁵⁹⁾

한계는 임란이 끝난 후 향리에 돌아와 백야동의 김대명과 함께 향촌의 풍속을 교화하는 데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그는 陽川許氏 縣監贈判書許鑄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 2남 1녀를 두었다. 그의 큰 아들 韓夢龍은 무과에 올라 군수, 차자 鈞隱 韓夢參(1589~1662)은 생원으로서 찰방을 지냈으며, 사위는 조종도의 셋째 아들 趙英混이다.⁶⁰⁾ 한몽삼은 진주지역의 대표적인 남명학파의 일원이었다.

정수리의 인적 관계망에서 재령이씨를 빼놓을 수 없다. 재령이씨 사의 공과 이침과 이전 형제의 정치·사회적 배경은 그의 세계와 혼맥에서 잘 드러난다. 그의 증조부는 함안 산익리 모곡촌 입향조 茅隱 李午이며, 조부는 李介智(1415~1487)이다.⁶¹⁾ 이개지의 처부 河敬履는 『신증』의 김해도호부·곤양군·사천현·하동현 등 여러 군현의 名宦條에 실릴 정도로 수령으로서 치적과 청백함으로 명망이 높았던 인물이다.⁶²⁾ 이개지는 鮮初 북방 진무에 크게 공을 세우고 1품의 재상에 올랐던 襄靖公 河

57) 『嘉靖二十二年癸卯八月二十四日生員進士試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6024-183]); 『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鈞隱集』 卷3, 碑誌 <曾祖考遷菴處士墓碣銘[代從兄夢逸作]>.

58) 『鈞隱集』 卷3, 碑誌 <先考府君墓表>.

59) 『亂中雜錄』 卷1, 壬辰年(上) 5月 20日條.

60) 『鈞隱集』 卷3, 碑誌 <先考府君墓表>.

61) 『함주지』 권1, 塚墓 <李介智[許琛]>; 『澗松集』 卷3, 雜著 <李處士事蹟>.

62) 『신증』 권31, 곤양군·사천현·하동현 명환조; 『신증』 권32, 김해도호부 명환조.

敬復(1377~1438)의 조카 사위이며, 開城留守 姜壽明의 外孫壻이다.⁶³⁾ 이개지의 묘갈명을 지을 당시 참판으로 있던 許琛(1444~1505)은 진주 하씨 가문을 일러 ‘진양의 望族’이라 했다.⁶⁴⁾ 그만큼 이개지의 정치·사회적 네트워크가 매우 공고했음을 의미한다. 이전이 정수개리 입향조 한승리의 사위가 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이었다.

이침은 정수개리에 우거하였는데, 아들 李喜益·進士 李喜直·陶庵 李喜誠, 사위 師傅 篁巖 朴齊仁(1536~1618)·教授 羅應璧·姜冽·李極·李律을 두었다. 이희성은 외아들 이광훈을 두었으며, 이광훈은 두 아들 이해와 이기를 두었다. 이전은 한승리의 딸 사이에 4남을 두었으나 3남은 모두 무후이다. 그의 막내 아들 李喜仁만이 두 아들 李承勳·李繼勳을 두었으나 모두 후사를 두지 못했다. 이전과 조카 이희성의 묘갈명에 의하면 이승훈의 계자는 李垺이다. 이기는 이전의 중형 이침의 외아들 李光勛의 둘째 아들이다. 호조좌랑에 증직된 이기는 아들이 없어 李邦鉉을 계자로 삼았다. 이방현은 이기의 본가 형님 李垺의 둘째 아들이다.⁶⁵⁾

『司馬榜目』에 따르면 이희익(1520~?)은 1558년(명종 13) 식년시 진사 3등 52위에 합격하였다. 정수개리에 살던 이희익은 승어산리의 觀瀾 許國柱(1548~1608)와 사돈관계를 맺었다. 이희익은 허국주의 아들 許珪(1573~1610)을 사위로 맞아들였다. 이희익의 외손이 5위도총부부총관을 지낸 가선대부 연당 허동립이다.⁶⁶⁾

상사리와 정수개리의 우족 활동과 관련하여 반성현 구역 내의 부세에 관련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족에 의한 반성현 구역 내의 지역촌 지배는 진주의 향리에 의한 임내 반성현에 대한 자의적 부세 부과를

63) 『세종실록』 권82, 세종 20년 8월 17일(기사); 『함주지』 권1, 총묘 <李介智[許琛]>; 『柏村集』 卷10, 行狀 <先祖崇政大夫議政府贊成事襄靖公府君行狀>; 『斗山居士集』 卷6, 銘 <十三代祖妣河東鄭氏墓銘攷>.

64) 『함주지』 권1, 총묘 <李介智[許琛]>.

65) 『鶴棲集』 卷之十五, 墓碣銘 <司議李公墓碣銘[并序]>; 『順菴集』 卷21, 墓碣 <處士李公墓碣銘 並序○庚戌>; 『于軒集』 卷7, 墓碣銘 <陶庵先生李公墓碣銘 并序>.

66) 『葛庵集續集』 卷3, 神道碑銘 <嘉善大夫行平安道兵馬節度使兼安州牧使兼五衛都摠府副摠管許公神道碑銘 并序>.

제어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는 진주의 또 다른 임내의 예를 통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 중엽 당시에도 속현이 주현으로부터 겪고 있던 부세의 고통은 적지 않아 속현민들이 크게 유망하기도 했다. 이는 후술하듯이 선조의 진주 임내 곤명현의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화개부곡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읍의 아전들이 임내에 전가한 부세의 폐단은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했던 것 같다. 다만 조선 중기에 이르러 사족이 크게 성장한 속현과 속향 및 부곡지역은 아전이 맘대로 부세를 가혹하게 분배하거나 전가하는 경우가 드물었을 것이다. 우족은 말할 것도 없고 부세 부과 시 지역의 유력한 사족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속현의 경우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화개부곡의 사람들은 부역에 시달리다보니 모두 흩어져 떠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신응사의 승려들도 마찬가지였다. 신응사 승려는 부세에 시달리다가 마침 유람에 나선 南冥 曹植(1501~1572)에게 부세를 조금 줄여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진주목사에게 부치려는 것이었다.⁶⁷⁾ 신응사의 승려들은 경상우도의 유력 사족이자 문도를 형성하고 있던 조식의 편지로 인해 진주목사가 부세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는 당시 고을의 부세에 사족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족이 사는 자연촌과 리방은 다른 촌락에 비해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상사리와 정수개리의 우족은 진주 임내 반성현의 부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진주지역 우족과 진주목사 이제신 간에 새로운 갈등을 낳았던 하나의 원인이었다. 즉 1576년 소위 ‘本州豪強之禍’와 1578년 상사리 백야동의 진사 鄭大濩 부자 등이 관련된 소위 ‘진주목사發兵符分실사건’이 그것이다.⁶⁸⁾ 이때 상사리 백야동의 정대호 부자가 진주목사 이제신에 의해 무고되었다. 이 두 사건은 상사리 백야동의 우족 정대호 가문을 비롯한 진주지역 사족

67) 『南冥集』 卷2, 錄〈遊頭流錄〉.

68) 『진양지』 권4, 총담조 ; 『선조실록』 권12, 선조 11년 7월 18일(정묘).

과 수령 간의 향촌지배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초래된 정치적 사건이었다.

2. 우족 거주 里坊의 성장

여말선초 지방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속현이 주현화하였다. 반성현의 동쪽과 북쪽으로 이웃하던 진주의 임내 진해현과 의령현도 1390년(공양왕 2)에 감무가 두어졌다.⁶⁹⁾ 두 현이 주현으로 승격되고 반성현만 주현이 되지 못했는데, 반성현은 진해현보다 호수가 더 많았다.⁷⁰⁾ 더구나 조선 초기 속현의 백성은 주현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1419년 윤1월 玉川府院君 劉敞은 주·부·군·현의 아전이 그 속현을 침탈함으로써 속현의 백성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밤낮으로 직속 수령을 얻고자 한다면서 그 토지의 廣狹과 백성의 다소를 헤아려서 수령을 과전하기를 청원하였다.⁷¹⁾ 이러한 속현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반성현이 주현으로 승격하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이는 곧명현의 승격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昆明縣이 주읍으로 승격한 것은 1419년 진주 임내 곧명현의 북쪽 所谷山에 御胎를 안치한 특수한 조건에 기인했다. 1419년(세종 1) 3월 진주의 임내 곧명현에 남해현을 합쳐서 昆南郡으로 승격시켰다.⁷²⁾ 이 논의 과정에서 주현과 임내의 대조적인 태도가 주목된다. 경상감사 申商이 “곧명을 남해현과 합하여 따로 한 고을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면서 지도를 올리자, 세종은 “지형으로 보면 곧명이 당연히 남해와 합해야 하겠지만 곧명을 빼앗아서 남해에 주면 진주 사람이 반드시 원통하다고 할 것이니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였다.⁷³⁾ 이처럼 곧명현을 주현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진주 주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구역을 빼앗기

69) 『세종실록지리지』 의령현 건치연혁조 ; 『세종실록지리지』 진해현 건치연혁조.

70) 『세종지리지』 진해현 호구조 ; 진주목 호구조.

71)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윤1월 29일(무술).

72) 『세종실록』 권3, 세종 1년 3월 27일(신미) ; 『경지』 곧남군 건치연혁조.

73) 『세종실록』 권3, 세종 1년 3월 27일(신미).

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元肅·金益精 등이 “곤명이 진주 사람의 횡포에 시달리어 따로 고을을 만들려고 한 적이 오래였다.”라면서 곤남군을 설치하자고 아뢰자, 임금은 그 제안에 따랐다.⁷⁴⁾ 곤명현의 토성이족인 全·文·俞氏 등은 주읍으로 승격시키려고 했던 곤명현 사람들의 여론을 주도했던 세력으로 여겨진다. 그들 토성이족은 주읍의 횡포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리던 토착 세력이었다. 자연히 그들의 불만이 태실 안치 과정에서 노출되었으며, 그들의 주읍화를 위한 오랜 활동이 중앙의 知申事 元肅 등의 동의를 얻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반성현은 토성이족이 고려 말기 왜구의 침탈 과정에서 크게 타격을 받아 거의 세력을 잃었으며, 來姓과 같은 새로운 토착세력의 성장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반성현이 주현으로 승격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주요한 이유는 반성현이 진주 임내 가운데 주현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아울러 주현의 읍치로부터 거리, 부세 부과를 둘러싼 주현과의 갈등 등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성현에 이웃한 진주 임내 영선현이나 진성부곡의 이속을 통한 반성현의 주현 승격은 그 임내 지역이 주읍과 거리가 비교적 가까웠으며, 곤남군의 설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임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진주 사람들의 원통함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반성현은 여말선초의 지방제도 개혁 과정에서 주현으로 승격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1469년 편찬의 『경상도속찬지리지』 堤堰條를 보면 진주의 임내의 정리 상황을 알 수 있다. 반성현은 영선현·악양현과 함께 진주의 속현으로 존속하고 있었다. 반면에 興善廢縣은 『동국여지승람』 편찬 당시 이미 직촌이었다.⁷⁵⁾ 이처럼 15세기 말기부터 1530년까지 변화의 양상이 반영된 『신증』에서 반성현은 영선현·악양현과 함께 여전히 진주의 임내로 존재했다. 그렇다면 1530년 이후 멀지 않은 시기에 반성현은 혁파되

74) 『세종실록』 권3, 세종 1년 3월 27일(신미).

75) 『신증』 진주목 고적조.

고 방위면 형태의 면리제로 재편되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우족의 활동과 관련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16세기에 이르러 반성현 구역 내에서는 우족과 같은 강력한 사족 가문만이 아니라 청원리와 승어산리에 정착한 사족들이 정착한 자연촌을 중심으로 지역촌으로서 리방의 성장을 촉진시켰을 것이다. 이에 따라 반성현은 악양현과 달리 1558년⁷⁶⁾ 이전에 반성현의 현내를 중심으로 한 반성리를 제외하고 우족과 사족들이 사실상 촌락 지배를 실현하고 있었다.

한편 고려 초기 이래 반성현에서는 토성 吏族이 배출되었던 읍치를 거점으로 그들의 지배력이 일상적으로 미쳤던 범위에 縣內가 형성되었다. 고려 말기 반성현에서는 읍사를 구성하던 토성이족에 변화가 일어나 고성에서 온 來姓 김씨가 향리가 되었다. 이로써 반성현은 다른 속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리로 인한 폐단이 적었을 것이다.

반성현의 향리가 실제 지배력을 행사했던 현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자연촌이 하나의 리방으로 편성된 반성리 지역이 성장이 가장 빨랐다. 그 다음은 백야동의 上寺里와 용암의 정수개리이었다. 용암과 백야동이 일찍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려 초기 이래 유행한 裨補寺刹이 두어졌던 것과 관련이 클 것이다.

용암사는 開國祖師 道詵이 “만일 세 巖寺를 창립하면 三韓이 합하여 한 나라가 되고 전쟁이 저절로 종식될 것이다.”라는 智異山主 聖母天王的 비밀스러운 부탁으로 인하여 창건한 仙巖·雲巖과 함께 세 암사의 하나였다.⁷⁷⁾ 이와 같이 비보사찰로서 창건된 용암사가 14세기 초에 창건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용암사의 창건은 고려 초기일 것이다. 정수개리의 용암촌은 용암사의 寺下村으로서 형성되고 성장하였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사리는 비보사찰에서 유래된

76) 1558년 4월 남명 조식이 龜巖 李楨(1512~1571) 등과 함께 지리산을 유람하고 남긴 유람록에 의하면 악양현의 아전들이 대나무를 엮어 가마처럼 만들어서 남명 일행 모두를 메고서 화개천을 건너게 하였으며, 남명 일행은 악양현 앞까지 내려가서 배를 정박하고, 縣倉에 들어가 잤다.([南冥集] 卷2, 錄 <遊頭流錄>) 이처럼 1558년 4월 무렵에도 악양현은 진주 임내였다.

77) 『東文選』 卷68, 記 <靈鳳山龍巖寺重創記[朴全之]>.

지명인데, 그 자연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된 백야동은 처음 사하촌에 비롯했으나 우족의 정착과 함께 본동으로 성장하였을 것이다.

상사리 우족의 존재양태와 백야촌의 실태는 백암 김대명(1536~1603)과 八松 鄭必達(1611~1693)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김대명은 1603년에 지은 <洞約跋>에서 “우리 마을 이름은 진주에서 오래됐다.”라고 하였으며, 정필달은 1674년에 지은 <自叙>에서 “진주는 영남의 반이고, 영남은 조선의 반이며, 백야동촌은 한 고을을 통솔하였다.”라고 한 사실에서도 우족 거주 리방의 성장과 사회적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상사리 백야동에는 입향조 정순의 내외손이 세거하면서 극히 번성하였다.⁷⁸⁾ 상사리 백야동 진양정씨 가문과 울산김씨 및 진양강씨 가문으로 이루어진 우족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였음은 후대의 기록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상사리 白也洞은 奉化訓導를 지낸 龍洲 鄭寬(1507~?)의 고조부 도염서령 정순의 친손과 외손 가문이 거주하던 마을로서 조선 중기 진주목의 가장 번성했던 마을이었다.⁷⁹⁾

상사리의 속방 白也는 白也峴,⁸⁰⁾ 白也村,⁸¹⁾ 白也洞,⁸²⁾ 白也里⁸³⁾ 등으로 지칭되었다. 백야현에 형성된 자연촌은 진양정씨 은열공파 정순의 입향과 그 내외손의 번창으로 인해 자연촌이었지만 리로 칭해지기도 했다. 정순이 백야현에 입향하고 그의 증손 삼계 정밀(1520~1582)은 白也里에서 태어났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백야동이 독립적인 행정 단위의 리방으로 편제된 것이 아니었지만 일상에서 촌(동)과 리가 혼용되었다.

78) 『진양지』 권4, 고적조.

79) 『巖棲集』 卷33, 墓表 <將仕郎奉化訓導鄭公墓表【癸亥】>.

80) 『三溪實紀』, <墓碣銘 并敘[李鍾祥]>; 『南溪實紀』 <行狀[趙璵]>; 『素窩集』 卷6, 墓碣銘 <參奉鄭公墓碣銘 并序>; 『晦峯遺書』 卷33, 記 <永思齋記>; 『一山集』 卷5, 記 <三溪亭記>, 白也峴村(『八松集』 卷2, <偶觀世譜有感 並序○己酉>; 『진양지』 권2, 亭榭 雙魁亭條.

81) 『진양지』 권2, 亭榭條; 『진양지』 권4, 고적조; 『八松集』 卷5, 序 <自叙>; 『后山集』 卷16, 墓碣 <南溪鄭公墓碣銘 並序>; 『東庵集』 卷5, 雜著 <記遊>.

82) 『白巖集』 卷1, 跋「白也洞案跋」; 『八松集』 卷5, 跋 <世譜跋 丙寅>; 『八松集』 卷6, 雜著 <世墓叙略 乙丑>, 白也峴里(『白巖逸稿』 卷2, 附錄 <行狀[權繼亨]>).

83) 『三溪實紀』, <墓碣銘 并敘[李鍾祥]>; 『珠潭集』 卷2, 家狀 <高祖考白巖先生家狀>.

이는 백야동이 사회·경제적으로 리방에 버금가는 촌락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부사 성여신이 주도한 ‘琴山洞約’이 임진왜란 이후 대여촌리와 금산리가 합쳐진 공간적 범위에서 실시된 것이지만 백야동은 임진왜란 전후 모두 백야동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었던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⁸⁴⁾ 이처럼 상사리의 속방으로서 자연촌인 백야촌, 또는 백야동은 백야리로 지칭될 정도로 리방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정수개리와 청원리의 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리방이 부다리였다. 먼저 반성현의 역원 어숙원은 읍치에서 동쪽으로 62리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였다.⁸⁵⁾ 어숙원의 공간적 위치는 바뀌지 않았으나 그 소속 리방은 변화를 겪었다. 1469년 무렵의 기록으로 보면 어숙원은 淸元里에 있었다.⁸⁶⁾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당시 이미 청원리는 반성현의 리방으로서 행정단위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확정적인 근거 자료는 없으나 적어도 지역촌으로 존재했던 것 같다.

그런데 『동국여지승람』 진주목 역원조에는 어숙원의 소속 리방이 나오지 않다가 1632년 편찬의 『진양지』 역원조에 이르러 어숙원의 소속 리방이 부다리라고 나온다. 물론 어숙원의 위치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어숙원의 위치는 『동국여지승람』과 『진양지』가 차이가 없다. 소속 리방만 청원리에서 부다리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부다역은 처음 반성현의 정수개리에 속했으나 역촌이 성장하면서 이웃의 청원리 어숙원과 함께 지역촌으로서 부다리로 독립하였다.

정수개리와 청원리의 도로 연결망은 일상생활의 길과 국가 관할하의 의도한 길이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고려시대 山南道에 소속된 28개 역 가운데 반성현의 富多驛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⁷⁾ 부다역은 청원리의 속방 모곡과 경계를 이루고 민들의 일상생활 공간 범위 내에 위치하였으나 처음 정수개리에 속한 역촌이었다. 정수개리의 부다역은 반성현의

84) 『浮查集』 卷5, 雜著 <琴山洞約【并序】>; 『白巖集』 卷1, 跋「白也洞案跋」.

85) 『신증』 권30, 진주목 역원조.

86) 『경상도속찬지리지』 진주목 원우조.

87) 『고려사』 권82, 병지 참역조.

읍치만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정보를 비교적 빨리 접할 수 있는 마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驛村이 형성되고 이웃의 院中과 함께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자연촌이 형성되고 지역촌의 속방으로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부다리는 정수개리와 청원리에서 각각 성장한 부다역의 역촌과 어숙원의 원중이 중심이 된 지역촌이었다. 요컨대 부다역은 처음 반성현의 정수개리에 속했으나 15세기 말 이후 역촌이 성장하면서 이웃 청원리 어숙원과 함께 지역촌으로서 부다리로 독립하였다.

역촌과 원중의 성장을 통한 부다리 형성의 또 다른 배경은 16세기 이후 우족과 사족이 정수개리와 청원리에 정착하고, 그들에 의한 곡간 분지의 개간과 수전농업의 발전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⁸⁸⁾ 이에 따라 어숙원이 있던 청원리의 속방 원중과 부다역이 있던 정수개리의 속방 역촌 중심의 자연촌이 부다리라는 지역촌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과 1916년 측도의 「의령교통도」에 의하면 정수개리는 진주군 二班城面 용암촌·미곡동·鳥田洞·東村·反德村·長安村·西村·沙寧洞·坪村·芝荷村 등 10개소의 촌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 10개소의 자연촌 가운데 지금의 중도마을을 포괄하는 평촌은 막야동으로 추정되며 우족 청주한씨가 정착한 마을이다. 사령동은 이전의 부인, 즉 한승리의 딸이 묻힌 자연촌이다.⁸⁹⁾ 용암촌·미곡동·평촌·사령동을 제외한 여섯 마을은 조선 후기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이 형성된 정수개리의 자연촌으로 추정된다.

88) 16세기 이후 상사리와 정수개리의 수전농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별고를 준비 중이다.

89) 『順菴集』 卷21, 墓碣 <處士李公墓碣銘 並序[庚戌]>. 사령동은 지금의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진안마을로 추정된다. 그리고 조은 한몽삼은 1662년 11월 세상을 떠나 다음해 1월 沙寧洞 선영에 묻혔다.(『釣隱集』 卷4, 附錄 <行狀[張錄]>)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진주 임내 반성현 구역 내의 자연촌의 실태·右族이 정착한 자연촌·우족의 활동과 그 거주 리방의 성장을 규명하고자 했다.

첫째, 『경상도지리지』 진주 임내 반성현의 四方界域에 의하면 그 구역 내에 해당하는 리방은 班城里·柯樹介里·丁樹介里·非羅洞里·富多里·上寺里·龍鳳里·淸源里·勝禦山里 등 모두 9개소였다. 그 리방의 자연촌은 연계재본 『진양지』에 의하면 35개소이지만 그 실태를 고증한 결과 적어도 39개소였다. 이 가운데 반성현의 현내는 반성현의 읍치에 해당하는 지역촌 규모의 자연촌이었으며, 현내 주위의 자연촌은 상사리의 백야동·우곡촌·둔동동·지소, 정수개리의 용암·미곡, 청원리의 청원촌·모곡촌, 승어산리의 승어산촌, 가수개리의 가산촌, 비라동리의 대동, 부다리의 원중·역촌 등이었다.

둘째, 우족의 실체와 그들이 정착한 자연촌 및 시기를 검토한 결과 상사리 우곡촌에는 진양정씨 우곡공과 隅谷 鄭溫(1324~1402)이 정착했다. 상사리 백야동에는 고려 말기 진양정씨 은열공과 都染署令 鄭淳이 정착했다. 정순의 현손이 進士 鄭角·龍洲 鄭寬(1507~?)·三溪 鄭密(1520~1582)·龍潭 鄭安(1527~?) 등이다. 또한 백야동에는 울산김씨 白巖 金大鳴(1536~1603)의 고조부 奉化縣監 金國老가 정순의 딸과 혼인을 통해 이주했다. 정수개리 莫耶洞에는 16세기 초에 遯菴 韓承利(1477~1536)가 정착했으며, 한승리의 사위 재령이씨 사의공과 大山 李璵(1502~1579)과 그의 仲兄 忠順衛 李琛이 입향하여 거주하기도 했다.

셋째, 16세기 중엽 상사리와 정수개리 우족 가문의 정치·사회적 활동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반성현은 사실상 혁파되었을 것이다. 정순의 내외손 가문은 상사리 백야동을 중심으로 하여 경상우도 울산김씨·진양강씨·경주정씨·재령이씨·태안박씨·창녕성씨·함안조씨·진양하씨·김해허씨 등의 가문과 혼맥을 통해 사회적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그리고 정수개리의 청주한씨 가문은 막야동에 정착한 이후 우족으로서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함안과 진주지역의 유력한 사족 가문인 재

령이씨와 혼인을 통해 사회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나아가 함안조씨·진양하씨·진양강씨·경주박씨 가문 등과 혼맥을 통해 재지적 기반을 확장하였다. 상사리와 정수개리의 우족 가문들은 남명학파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삼고, 대과와 사마시 합격자를 다수 배출함으로써 정치·사회적 활동과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도 적지 않았다. 특히 백야동의 우족들은 그 과정에서 향촌지배권을 두고 진주목사 이제신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넷째, 정운·정순·한승리·이전 등 우족 가문이 반성현의 縣內 외곽 상사리의 우곡촌·백야동과 정수개리의 막야동에 정착하여 번성함으로써 그 자연촌의 성장이나 새로운 자연촌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상사리의 속방으로서 자연촌인 백야동[백야촌]은 백야리로 지칭될 정도로 리방의 규모로 성장했다. 정수개리의 중심 마을은 조선 초기까지 龍巖寺의 寺下村인 용암이었으나 16세기 초에 청주한씨가 막야동에 정착함으로써 막야동이 정수개리의 중심 마을로 성장하였다. 용암촌이 있던 정수개리 지역과 백야동이 있던 상사리 지역은 반성현의 지역촌 가운데 縣內 다음으로 이른 시기에 촌락이 형성되고 우족 중심의 리방으로 성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 논문은 2022년 5월 2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世祖實錄』, 『端宗實錄』, 『中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慶尙道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誌』, 『新增東國輿地勝覽』, 『東文選』, 『續東文選』, 『晉陽誌』, 『晉陽誌辨誣通文』, 『晉陽續誌』, 『咸州誌』, 『鼎山志』, 『葛庵集 續集』(李玄逸), 『敬齋集』(河演), 『郊隱集』(鄭以吾), 『南溪實紀』(鄭承尹), 『南冥集』(曹植), 『訥菴集』(朴旨瑞), 『凌虛集』(朴敏), 『端溪集』(金麟燮), 『東菴集』(李鉉郁), 『斗山居士集』(姜柄周), 『茅隱實記』(李午), 『勿川集』(金鎮祐), 『白巖集』(金大鳴), 『柏村集』(河鳳壽), 『浮查集』(成汝信), 『三溪實紀』(鄭密), 『星湖僊說』(李瀾), 『素窩集』(許瓚), 『順菴集』(安鼎福), 『梧溪集』(曹挺立), 『于軒集』(李壽岳), 『一山集』(趙昂奎), 『釣隱集』(韓夢參), 『滄洲遺事』(河愷), 『拓庵集』(金道和), 『拓齋集』(李宗鎬), 『青坡集』(李陸), 『八松集』(鄭必達), 『鶴棲集』(柳台佐), 『杏亭集附錄』(李重光), 『杏亭集』(李重光), 『晦峯遺書』(河謙鎮), 『后山集』(許愈), 『釣隱先生世系圖』, 『晉山世藁』(晉陽姜氏), 『晉山世稿』(晉陽河氏), 『晉陽河氏族譜』, 『晉陽姜氏大同譜』, 『晉陽鄭氏隅谷派世譜』, 『晉陽鄭氏族譜』, 『晉陽河氏族譜』, 『安陵三稿』(載寧李氏), 『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06]), 『朝鮮地誌資料』(국립중앙도서관 BA2 703-1), 『隆慶四年庚午二月十八日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 古朝26~29-2).

조선총독부 편,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조선총독부, 1912.
越智唯七 編,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中央市場, 1917.
조선총독부 편, 『朝鮮の聚落(後篇)』, 조선총독부, 1935.
조선총독부 편, 『晉州(馬山十三號)』, 『朝鮮地形圖』, 육지측량부, 1918.
조선총독부 편, 『泗川(馬山十四號)』, 『朝鮮地形圖』, 육지측량부, 1918.
조선총독부 편, 『宜寧(馬山九號)』, 『朝鮮交通圖』, 육지측량부, 1926.
조선총독부 편, 『鎭東(馬山十號)』, 『朝鮮交通圖』, 육지측량부, 1926.

金武鎮, 「朝鮮前期 村落의 形成과 村落社會의 諸勢力」, 『國史館論叢』 30, 1991.

- 金俊亨, 「朝鮮後期 面里制의 性格」(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류승희, 「17세기 진주지방 촌락의 성장과 面-里-屬坊체제의 확립」, 『典農史論』 7, 2001.
- 박용국, 「壬辰倭亂期 晉州地域 南冥學派의 義兵活動」, 『南冥學』 16, 2011.
- 박용국, 「진주시」, 『한국지명유래집(경상편)』, 국토지리정보원, 2011.
- 박용국, 「진주 청원리 拓齋 李鍾浩의 가계와 그의 삶」, 『경남권문화연구』 24, 2014.
- 박용국, 「부사 성여신의 가계와 그의 삶」, 『부사 성여신』, 예문서원, 2015.
- 박용국, 「조선 초·중기 진주 승산리의 역사 변천」, 『남명학연구』 56, 2017.
- 박용국, 「조선 중기 진주지역 사족과 청곡사의 장소성」, 『남명학연구』 59, 2018.
- 朴宗基, 「朝鮮初期의 部曲」, 『國史館論叢』 92, 2000.
- 박종기, 「조선 초기 부곡의 규모와 존재 형태」, 『동방학지』 133, 2006.
- 朴宗基,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 『한국중세사연구』 24, 2008.
- 朴鎮愚, 「朝鮮初期 面里制와 村落支配의 강화」, 『韓國史論』 20, 1988.
- 배상현, 「高麗時代 寺院 村落 研究」, 『國史館論叢』 87, 1999.
- 오이환, 「『晉陽誌』의 출판」, 『동방학지』 155, 2011.
- 윤경진, 「『高麗史』 地理志 ‘신설’ 군현의 연원」, 『新羅文化』 40, 2012.
- 李海濬, 「17世紀初 晉州地方의 里坊再編과 士族」, 『규장각』 6, 1982.
- 최윤진, 「16, 17세기에 편찬된 慶尙道の 私撰 邑誌」, 『전북사학』 17, 1994.
- 박종기,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 李樹健, 『韓國中世社會研究』, 일조각, 1984.
-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출판부,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Libang of Jinju Dongmyeon's Ujok Residence in the Early and middle Choson period

Park, Yong-guk

First, According to the four-way boundary of Bansonghyon, the Jinju Imnae of 『Gyeongsangdojiliji』, there were 9 Libangs within that area, including Bansongri, Sangsangri, and Jeongsugaeli. The natural villages in nine Libang were 35 places according to the Yeongyejaebon 『Jinyangji』, bu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ctual situation, it was revealed that there were 39 places in all.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natural villages and time period of Libang where Ujok settled, Jinyang Jeong Clan Ugoggongpa Jeong On settled in Sangsari Ugogchon and Jinyang Jeong Clan Eunyeolgongpa Jeong Soon settled in Sangsari Baekyadong in the late Goryeo, respectively. Also, Ulsan Kim Clan Kim Guk-ro moved to Baekyadong through marriage with Jeong Soon's daughter. Jeongsugaryri Makyadong was settled by Cheongju Han Clan Han Seung-ri at the beginning of the 16th century, and Han Seung-ri's son-in-law Jaelyeong Lee Clan Sauigongpa Lee Jeon and former second older brother Lee Chim moved there.

Third, the Nae'oeson(内外孫) family of Jeong Soon of Sangsari Baekyadong and the Cheongju Han Clan family of Jeongsugaryri Makyadong established a social foundation through marriage with the influential families of Haman and Jinju, based on their superior social status as Ujok. Through this, they expanded their base within the

region. These Ujoks, based on Nammyeonghagpa's human network, produced a large number of Gwageo Exam passers, so they had considerable political and social activities and influence. In particular, the Ujoks of Baekyadong had conflicts with Jinju Governors Lee Je-sin over the dominance of rural communities in the process.

Fourth, Ujoks settled and prospered in Sangsari and Jeongsugaryri outside Hyunnae of Bansonghyon, leading to the growth of natural villages and Libang. Sangsari's Baekyadong was also referred to as Baekyari. This has a lot to do with Baekyadong's growth. Until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central village of Jeongsugaryri was Yongamchon, the Yongamsa Saha village. However, by the beginning of the 16th century, Makyadong, where the Ujok family settled, has grown as its central village. Sangsari and Jeongsugaryri are considered to be Libang, where Ujok-centered villages were formed and developed in the earliest period after Hyunnae among the district villages of Bansonghyon.

keywords :

Jinju, Dongmyeon, Ujok, Banseonghyeon, Libang, Sangsali, Jeongsugaeli

